

『사자들』: (피)지배적 사고와 그 해체

김 상 효

I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가 그랜트 리처즈(Grant Richards)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을 창작한 작가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다. 그의 의도는 자기 조국의 도덕사(moral history)를 쓰는 것이었으며, 더블린을 작품의 배경으로 택한 것은 더블린이 마비의 중심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Letters* 83). 즉, 작가는 더블린 사람들의 ‘정신적 마비’를 이 단편집의 주제로 설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자들』(“*The Dead*”)에서 볼 수 있는 마비의 주제는, 이 단편이 『더블린 사람들』의 결론으로 의도되었기 때문에, 다른 단편들의 주제와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제시된다. 다시 말하면, 주인공 게이브리얼 콘로이(Gabriel Conroy)는 작품의 대부분에서 더블린 사람들처럼 마비되어 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마비상황을 인식하고 자아 각성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본 이 작품의 주제는 주인공이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해체주의의 이념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와 서구 형이상학의 이념에서 시작된다. 해체주의 비평가인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이론에 따르면,¹⁾ 구조주의는 중심(center)이

1) Jacques Derrida, *Positions*, trans. Allan Bass(Chicago: U of Chicago P, 1981);

현존한다고 믿음으로써 의미의 유희(play)를 제한하며, 서구 형이상학은 이 항 대립 요소(binary opposition) 간에 서열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삶을 구속한다. 반면 해체주의는 중심의 부재를 인정하여 의미의 유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분법적 서열체계를 해체하여 인간들 상호간의 평등한 상황을 지향한다. 이처럼 데리다의 해체철학은 ‘중심의 현존과 부재,’ 그리고 ‘이분법적 서열체계의 형성과 해체’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자들」의 주인공이 마비 상태에서 자아를 인식하는 것은 그의 의식이 구조주의적이고 서구 형이상학적인 것에서 해체주의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조이스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의식을 처음에는 구조주의적이고 서구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후반부에서는 주인공이 이러한 사고의 폐쇄성을 인식하고 해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을 그 분석 틀로 삼아 게이브리엘의 (피)지배적 사고와 그 해체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 작품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사자들」은 그 제목이 암시하듯 ‘생중사’(the living dead)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연회를 주최하고 있는 모컨(Morkan) 자매들의 외모,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분위기, 그들의 폐쇄적 종교관, 게이브리엘의 성격과 태도, 프레디 맬린즈(Freddy Malins)의 외모와 언행, 그의 어머니의 모습, 브라운(Mr Brown)의 무의미한 대화, 그의 인종차별 의식, 피아노 연주에

Of Grammatology, trans. G. C. Spivak(Baltimore & London: Johns Hopkins UP, 1976); “Differance,” *Margins of Philosophy*, by Derrida, trans. Allan Bass (Chicago: U of Chicago P, 1982), pp. 1-27;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 *Writing and Difference*, by Derrida (Chicago: U of Chicago P, 1978), pp. 278-93 참조

무관심한 젊은이들의 모습, 인물들 상호간의 단절된 대화 등을 통해 표현된다. 특히 모건 자매들은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잘 먹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they believed in eating well,’ not God,” Kenner 63),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줄리아(Julia)의 모습에서 이러한 면이 두드러진다.

줄리아 이모는 비록 튼튼하고 꼳꼳하긴 하지만, 그녀의 활기 없는 눈과 벌어진 입술을 보면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여인의 모습처럼 보였다.

Though she(Julia) was stout in build and stood erect, her slow eyes and parted lips gave her the appearance of a woman who did not know where she was or where she was going.²⁾

줄리아뿐만 아니라 작품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도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매년 즐거운 연회를 즐기고 있지만, 그 연회는 의례적으로 되풀이되는 생명력 없는 행사일 뿐이다. 윌리엄 요크 틴덜(W. Y. Tindall)은 매년 진행되어온 이 행사를 “죽음의 무도회”(a dance of death, 43)라고 설명한다.

게이브리엘은 이 연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초월적인 중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데리다의 이론에 따르면, 중심은 현존하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 부재한다. 그러므로 게이브리엘이 중심이라고 믿는 관념들도 역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심의 현존을 믿기 때문에 자기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정신적, 지적,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거나 강한 자에 귀속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게이브리엘의 (피)지배적 성격을 통해 표현된다. 이와 같은 그의 성

2) James Joyce, *Dubliners*(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14), p. 177. 이하 이 작품으로부터의 인용은 페이지를 첨부하여 본문 속에 넣기로 한다.

격은 서구 형이상학적인 것으로서 이분법적 서열체계를 전제한다. 그러나 해체주의의 이념은 이항대립 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서열체계를 해체하여 이들이 평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상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해체의 대상이 되는 게이브리엘의 (피)지배적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성격의 해체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해체주의는 이분법적 서열체계를 형성하는 구조주의와 서구 형이상학의 이념을 해체의 토대로 삼기 때문이다.

게이브리엘의 사유형태는 서구 형이상학의 관념체계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양상을 모두 보여준다. 그 하나는 지배적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피지배적 성격이다. 전자는 그의 자기중심주의, 지적·교양적 우월감, 가부장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등을 통해서, 후자는 문화적 사대주의와 정치적 사대주의를 통해 드러난다.

먼저, 그의 지배적 사고가 자기중심주의적 성격을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조이스는 작품 초반에서 게이브리엘의 자기중심적 성격을 묘사함으로써 그의 지배적 성격을 예시하고 있다. 게이브리엘과 관리인의 딸 릴리(Lily)의 대화를 살펴보자. 게이브리엘이 그녀에게 “곧 너의 결혼식에 가봐야 하겠네?”라고 말하자, 그녀는 “요즘 남자들은 완전히 수다쟁이에 불과해요”라고 대꾸한다(175-76). 자신이 던진 질문에 릴리가 신랄하게 대답하자, 그는 얼굴을 붉히며 당혹스러워 한다. 게이브리엘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의 질문이 그녀에 대한 순수한 관심의 표명이 아니라 자신의 관대한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상황에서 그녀는 단지 그의 기분 좋은 대화를 위한 주제에 불과하다(Daiches 33). 릴리가 자신의 실체를 무시하는 질문에 과감하게 대답함으로써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게이브리엘은 그녀의 이해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녀에게 동전을 줌으로써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이다. 데이비드 데이치즈(David Daiches)가 이 작품의 주제를 주인공이 “자기중심주의의 범주 속으로 움츠러드는 것”(32)이라고 설명한 것은 게이브리엘의 성격을 잘 지적한 말이다. 자기중심주의는 자신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타인을 주변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분법적 서열체제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게이브리엘의 자기중심주의는 곧 그의 지배적 성격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조이스는 게이브리엘의 자기중심주의를 통하여 그의 지배적 성격을 예시하고 있다.

게이브리엘의 지배적 성격은 그의 지적 우월감에서도 볼 수 있다.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신문에 서평을 기고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연회에 모인 다른 사람들보다 지적으로 우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높은 지성을 뽐낸다고 스스로 염려하듯, 그는 실제로 자신의 지적 오만을 드러낸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연설문을 생각하면서 그 내용에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의 시를 인용한 것에 대해 다소 불안해 한다. 연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 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셰익스피어나 아일랜드 서정시집에서 인용한 시가 그들이 이해하기에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적 우월감을 드러낸다.

그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에서 인용한 시구가 마음에 걸렸다. 왜냐하면 자기의 연설을 듣게 될 사람들이 그 시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나 아일랜드 서정시집에서 몇 구절을 인용했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다.

He was undecided about the lines from Robert Browning, for he feared they would be above the heads of his hearers. Some quotation that they would recognize from Shakespeare or from the Melodies would be better. (176-77)

그의 지적 우월감은 그가 연설문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아이버즈양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연설문에 새로운 한 대목을 삽입하려 하면서, 그는 두 이모의 무식함을 떠올리고 그들이 그 대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다. 이것은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브라우닝의 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의 지적 교만과 다름 바 없거니와, 아이버즈양에게서 당한 모욕을 설욕하기 위해 연회 참석자들의 이해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지적 오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자신들이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고 강조하면서도 자신이 그들보다 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무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물들 상호간의 이해와 사랑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행위를 보고 그들의 교양이 자신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매우 짧은 예시이긴 하지만 그의 교양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좋은 실례가 된다.

남자들의 구두 뒤축이 상스럽게 덜거덕거리는 소리와 구두창을 질질 끄는 소리를 듣고 그는 그들의 교양 수준이 자신과 다르다고 느꼈다.

The indelicate clacking of the men's heels and the shuffling of their soles reminded him that their grade of culture differed from his. (176-77)

이와 같이 그는 지식과 교양의 수준에 있어서 거기에 모인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그들의 실체를 무시한 채 짐작과 외양만을 그 척도로 하여 지식과 교양의 우열을 가름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구조주의적이고 서구 형이 상학적인 이념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그의 지배적 사고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등장인물들과 올바른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

게이브리얼의 또 다른 지배적 사고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중심주의적 성격에서 볼 수 있다. 가부장제는 부계(父系)의 가족제도에서 가장이 가족구성원들에 대하여 지배권을 가지는 가족체제를 말한다. 그러므로 가부장제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가장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는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형성한다. 게이브리얼은 이러한 이항대립쌍 중에서 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기질을 소유하고 있다. 케이트(Kate)와 그레타(Gretta)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게이브리엘은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고, 그들과 관련된 일들을 지나치게 걱정한다. 즉, 그는 땅이 질 때면 의례 아내에게 ‘고무덧신’(goloshes)을 신도록 강요하고, 아들 톰(Tom)에게 차광막을 끼게 하며 아령을 하게 하고, 딸 에바(Eva)에게는 그녀가 정말 먹기 싫어하는 귀리죽을 먹게 하기도 한다. 물론 그는 아내와 자식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러한 관심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너무 지나친 간섭과 억압이 되고 만다. 그레타는 게이브리엘이 다음에는 비올 때 입도록 잠수복을 사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관심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모컨 자매들도 조카의 관심을 한낱 웃음거리로 여기면서 안타까워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의 관심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의 가부장적 기질에서 연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게이브리엘은 식탁의 상석에 앉아 거위고기를 자를 때에야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는 가부장적 인물이다.

가부장중심주의는 남성인 게이브리엘에게서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모컨 자매들은 여성이면서도 가정의 모든 일을 남성중심으로 처리한다. 릴리가 콘로이 부부의 도착을 알릴 때, 두 자매들은 게이브리엘에게만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모컨 자매가 남성인 게이브리엘에게는 “매우 사랑하는 사람”의 특권을 부여하는 반면, 그의 부인은 단지 부속물 정도로 주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Ingersoll 46). 또한 케이트 이모(Aunt Kate)는 게이브리엘이 자기 집에 와 있을 때는 매우 든든하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가부장적 성격을 드러낸다. 이러한 면은 게이브리엘이 남성이므로 당연히 거위고기를 잘라야 하며, 인사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두 자매들의 생각에서도 나타난다.

게이브리엘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도 지배적 관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양성론과 상반되는 개념인 남성중심주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중심주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남성은 중심이며 여성은 주변이고,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는 개념이다. 양성론은 남성과 여성은 차이를 지니지만 상호 보완적이고 동등함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중심주의는 서구 형이상학적 개념이고 양성론은 해체주의적 개념이다.

헤일브룬(Carolyn G. Heilbrun)은 양성론이란 양성간의 화해의 정신이며, 이러한 정신이 우리의 미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ix-x). 게이브리엘에게서 양성론적 성격의 일면을 찾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남성중심주의적 양상은 릴리와 게이브리엘의 대화를 통해 암시되고 있으며, 특히 게이브리엘과 아이버즈양의 대화에서 두드러진다. 게이브리엘은 아이버즈양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정말 가야 한다면 집까지 모셔드리겠다”(193)고 말한다. 그녀와 불쾌한 논쟁을 벌이면서 수모를 당한 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남성인 게이브리엘이 기사도적 전통에 따라 여성을 위해 자기 희생적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중심주의적 혹은 남성우월주의적 태도는 역시 남성과 여성을 지배/피지배 혹은 우월/열등 등과 같은 서열체계로 나누는 지배적 관념이다.

게이브리엘은 부부관계에서도 남성중심적이다. 그는 아내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고, 연약하여 남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종속적인 존재로 본다. 이러한 관점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배/종속의 관계로 간주하는 범주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레타는 마차에서 내리면서 남편의 팔에 몸을 기대다. 게이브리엘은 아내가 자기에게 기대는 것을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하며, 아내가 자신의 ‘소유’라는 것에 기뻐하고, 아내의 우아하고 아내다운 몸가짐을 자랑스러워 한다.

그녀는 몇 시간 전에 그와 함께 춤추었을 때처럼 살며시 그의 팔에 기대었다. 그는 그 때 자랑스러움과 행복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기뻐고, 그녀의 우아하고 아내다운 몸가짐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She leaned lightly on his arms, as lightly as when she had danced with him a few hours before. He had felt proud and happy then, happy that she was his, proud of her grace and wifely carriage. (212)

이러한 게이브리엘의 시각은 양성론이 아니라 성별화(gender)의 개념에 따른 것이다. 성별화의 관점에서 볼 때, 남성들은 아내와 여성은 아내답고 여성다워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들을 소유하고 지배하려 한다. 게이브리엘은 이와 같은 의식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남성중심주의자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레타는 연회에서 들었던 「오그림의 처녀」(“The Lass of Aulgrim”)라는 노래를 생각하며 오래 전에 그 노래를 부르곤 했던, 이미 죽은 마이클 퓨어리(Michael Furey)를 회상하며 슬픔에 잠겨 있다. 게이브리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아내의 슬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분노할 뿐이다. 이는 게이브리엘이 여성인 아내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남성인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양성간의 지배적 관념은 게이브리엘이 아내와의 성관계를 생각하는 데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연회를 마칠 무렵부터 호텔에 도착하여 잠들기까지 아내의 연약한 면을 봄으로써 독단적으로 성행위의 기쁨을 상상한다. 하물며 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를 기다리면서 아내의 기분마저 지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성관계는 양성이 허락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게이브리엘은 오직 자신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내가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듯하다. 아내가 자기에게로 다가와 키스할 때, 그는 그것을 아내가 자신의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에 응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게이브리엘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다. 의미 해석에서 그는 남성이기 때문에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남녀관계나 성관계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지배적 사고는 “성의 식민지화”(Cheng 26)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게이브리엘은 아내의 기분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이것은 그의 남성중심주의적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또한 아내가 이미 죽은 어린 소년 때문에 슬퍼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도 역시 그의 남성중심주의적 사고에서 기인한다. 그레타의 사랑은 어린 시절의 순수한 사랑이었지만, 육체적 사랑만 갈구하는 게이브리엘에게 정신적 사랑이란 부재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가 남성이 중심이 되는 세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게이브리얼은 자기중심주의, 지적·교양적 우월감, 가부장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등을 통해 표현되는 지배적 의식과 함께 피지배적 의식도 지니고 있다. 피지배적 성격은 그의 사대주의적 의식에서 볼 수 있다. 사대주의는 어떤 인물이 뚜렷한 관념을 지니지 못하고 세력이 강한 대상에 의지해서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게이브리얼은 아일랜드의 문화가 아니라 유럽대륙의 문화에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자기중심주의, 지적·교양적 우월감, 가부장중심주의, 남성우월주의 등에서 볼 수 있는 지배체제와 상반되는 양상을 띤다. 게이브리얼은 이분법적 서열체계를 형성하는 지배/피지배의 대립쌍 중에서 어떤 경우는 지배적 상황을, 어떤 경우는 피지배적 상황을 지향한다. 문화적·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그는 바로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달리 생각해보면, 게이브리얼은 아이버즈양과 같은 편협한 국수주의적 경향을 버리고 대륙의 문화를 접촉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문화적 다원성을 추구한다면, 자신이 속한 문화도 다른 문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자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타국 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는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대륙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함으로써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대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그에게 서부로의 여행은 동부, 즉 영국과 유럽대륙으로의 여행과 반대 개념으로 제시된다.

“애란섬으로의 여행”은 . . . “여행이 아니다.” 서쪽으로 여행하는 것은 명백하게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명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원시의 상태로, “여성적인” 상태로, 아마도 심지어 이리가라이가 인용한 대로 프로이트의 “어두운 대륙”으로 퇴보하는 움직임이다. 이는 그러한 길이 무기력함과 취약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쪽은 바로 구속을 표현하는 것이며, 더 이상 온화하지 않고 과열되고 불쾌하게 혼잡한, 길들여진 감수성의 땅이다. 게이브리얼은, 그 땀가가 그가 갈망하며 두드리는 창문 밖 눈 덮인 세계의 빈곤함과 냉혹함이라 할지라도, 그 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An "excursion to the Aran Isles". . . is not "travel," for traveling west is a contradiction in terms. It is a regressive movement toward the pre-civilized, the natural, the "feminine," perhaps even toward Freud's "dark continent cited by Irigaray, since that way lies powerlessness and vulnerability. Thus the West is the very representation of confinement, the no-longer-warm but instead overheated and uncomfortably crowded geography of the domestic sensibility from which Gabriel is bent upon escaping, even if the price is the sterility and coldness of the snowy world outside the window upon which he longingly taps. (Ingersoll 45)

이처럼 게이브리엘은 서부가 지칭하는 아일랜드의 문화를 '무기력함과 취약성'을 지닌 것으로 보는 반면, 동쪽이 대변하는 유럽대륙의 문화를 '활력과 우월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그가 "문화적 지배체제"의 틀에 얽매어 있다는 것이다(Ingersoll 47). 이와 같이 그는 여러 측면에서 피지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지배 문화를 지향하고, 영국과 유럽대륙의 문화를 자기 조국의 문화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사대주의적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는 게이브리엘이 대륙의 문화에 상당한 관심과 호감을 표현하는 데서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대륙문화를 상징하는 것은 "고무땃신"이다. 그는 아내에게 대륙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무땃신을 신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신발의 유용성이나 필요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유용성이야 어찌되었던 그는 아내에게 이 신발을 신도록 강요한다. 이처럼 그가 고무땃신을 선호하는 것은 땃신을 신음으로써 신발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의도보다 아일랜드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륙문화의 산물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자국 문화에 대해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유럽대륙의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보다 우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고무땃신이라는 사소한 물건을 평가하면서 "그들의 매우 세련되고 문명화된 유럽문화"(Cheng 29)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그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사대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조이스는 작품의 여러 곳에서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를 암시하면서, 이러한 지배체제에 편승하는 아일랜드인들의 폐쇄적 사고를 지적한다. 특히 그는 게이브리엘의 피지배적 의식을 강조한다. 게이브리엘의 이러한 의식은 아이버즈양이 그를 “서부 영국인”(a West Briton, 185)이라고 말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서부 영국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일랜드를 독립된 국가로 보지 않고 영국의 서부 지방으로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친영파’라는 뜻을 함축한다(Gifford 116). 아일랜드는 독립된 국가이어야 하지만, 아일랜드인들조차 자기 조국이 영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아일랜드를 영국의 서부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영국은 ‘중심’이고 아일랜드는 ‘주변’이라는 종속적 개념이다.

게이브리엘은 문학이란 정치를 초월하는 것이며, 서평을 쓰는 것은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버즈양은 게이브리엘을 친영파라고 말한다. 물론 게이브리엘의 말처럼 친영 신문에 문학평을 기고한다고 해서 친영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버즈양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사대주의적 경향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그의 국가관을 살펴보면 더욱 구체화된다.

아이버즈양은 게이브리엘에게 이번 여름에 애란섬으로 유럽여행을 가지 않겠느냐고 묻는다(186). 이 질문에 그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해마다’ 친구들과 자전거 여행을 하며, 대체로 그들의 여행 목적지는 프랑스나 벨기에 혹은 독일이다. 아이버즈양은 그에게 자기 나라를 여행하는 대신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를 여행하는 이유를 묻는다. 여행의 목적은 그 나라의 언어를 접해보고 기분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당시 자기나라의 말인 게일어가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영국이 아일랜드를 식민지화함으로써 아일랜드어는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이브리엘은 자기 나라의 말은 잊어버린 채 영어를 사용하며, 더구나 다른 나라의 말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물론 그의 의도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접함으로써 한 국가의 문화에 집착하지 않고 대륙의 각 언어들이 지닌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게이브리엘은 자기 나라 말도 잊어버린 채 다른 나라 말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기 모순을 범한다. 결국 그는 아일랜드어가 자기 국어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언어에 있어서도 게이브리엘이 이분법적 관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관념은 아이버즈양의 신랄한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아이버즈양은 자기 조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신은 방문할 조국이 없으며, 또 당신은 당신의 조국과 민족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입니까?”(187)라고 반문한다. 이 때 게이브리엘은 조국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아일랜드인이면서 자신들을 지배하는 영국에 편승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하물며 자기 조국과 민족과 언어를 잊어버렸으며, 그러한 요소들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이버즈양이 게이브리엘을 서부 영국인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사대주의적 성격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피지배적 사고는 영국/아일랜드, 영어/아일랜드어, 영국인/아일랜드인 등과 같은 서열지어진 이항대립항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이버즈양이 자기 옷에 아일랜드의 문장(紋章)과 제명(題名)을 달고 있다든지, “자국의 독립을 반대하는 아일랜드의 보수적 신문(Gifford 116),” 『데일리 익스프레스』(*The Daily Express*)지에 글을 기고하는 게이브리엘을 비난한다든지, 자신이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것과 자신의 조국, 민족, 언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열렬한 민족주의자이며 국수주의자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게이브리엘은 그녀와 너무나 상반되는 사대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대주의는 지배적 상황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그의 의식은 역시 이분법적 서열체계를 형성한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게이브리엘은 지적·교양적 측면, 가족관계, 남녀관계, 부부관계, 성관계, 문화적·정치적 상황 등에서 지배적 혹은 피지배적 관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외적 및 내적 요인에 의해 점차 해체적 양상을 보인다. 내적 요인은 그의 성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근본적으로 지배적 사고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지성적이고 민감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 인물이다. 외적 요인으로는 그의 자기중심주의를 공격하는 릴리, 아이버즈, 그레타, 그리고 죽은 자인 플러리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제를 “주인공의 폐쇄적인 자기중심주의를 공격하는 것”(Daiches 32)이라고 설명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주위 인물들은 게이브리엘이 각성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그는 자신의 지배적 사고 체계를 공격하는 주위 인물들의 충격을 인식하고 퓨어리와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아내가 슬퍼했던 진정한 이유를 깨닫고 자아각성의 단계에 들어선다. 월턴 릿츠(Walton Litz)는 게이브리엘의 자아인식을 “한 어린이의 갑작스런 직감이 아니라 민감하고 지적인 성인의 완전한 경험”이라고 설명한다(58).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의 성격과 경험을 통해 점차 자아를 인식한다. 이 때의 자아인식은 지배적 성격 즉, 이분법적 서열체계를 해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서정적 이피파니(lyric epiphany)를 통해 이루어진다. 게이브리엘은 마이클 퓨어리라는 가스공장에서 일했던 소년이 아내를 위해 열 일곱 살에 죽었으며, 아내가 그것 때문에 슬퍼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게이브리엘은, 아내가 자신의 사랑을 그 소년의 사랑과 비교하고 있었음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서 수치스러움을 느끼며, 자신이 바보 같은 인물, 감상주의자, 가련한 어리석은 인물이었음을 깨닫는다. 이제 그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세계로 아내를 이끌어 가고자 했던, 그리고 자신이 이분법적 서열체계를 ‘중심’으로 여겼던 폐쇄적 사고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항대립의 지배적 관계를 해체한다.

극도의 우울감과 자만심을 지니고 있었던 게이브리엘은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하잘것 없는, 이미 죽은 그 소년이 아내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는데 부끄러움을 금치 못한다. 그는 진정한 사랑은 발견하지 못하고 늘 육체적 사랑만 갈구해온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랑은 소년의 회생적이고 순수한 사랑과 대비된다. 결국 그는 정신적 사랑을 염원했던 퓨어리와 육체적 사랑을 추구했던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폐쇄적 성격을 인식한다. 그는 마이클 퓨어리의 회생적 사랑의 가치를 인정하고,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인간존재의 가치를 자각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닌 지배적 의식도 초월적 중심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아내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그녀의 상황을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아내의 손이 따뜻함을 느끼고, 그 봄날

아침에 그녀가 자신에게 보낸 첫 편지를 애무하듯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는 관용의 눈물을 흘리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지녔던 지배적 사고를 해체하여 이항대립의 요소들을 상호 보완적이고 동등한 관점에서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사랑을 인식하고 이제 서부로 여행을 떠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서부로의 여행은 아무 가치가 없고 단지 동부로의 여행만이 자신의 시야를 넓혀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사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자아각성을 의미한다. 이 때의 자아각성은 해체의식을 말한다. 게이브리엘이 이렇게 해체적 사고를 지니게 될 때 창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눈은 작품 초반에서 게이브리엘의 폐쇄적 사고와 관련하여 “냉담, 고립, 비정”을 상징하며, 중반에서는 그의 자아인식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방, 도피, 알 수 없는 위안”을 상징한다(Litz 56). 그러나 이 부분에서의 눈은 주인공의 자아각성을 상징한다.

중용의 순백으로 만물을 뒤덮고, 만물의 차이짓는 요소들을 지워버리면서, 만물 위에 무심하게 내리는 눈은, 게이브리엘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새로운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의 상징이며, 그 자신만이 중심이 되는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간이 아니라, 마침내 사물의 일반적인 흐름에 기꺼이 참여하는 일부가 되도록 하는, 자기중심주의의 범주를 파괴하는 것의 상징이다.

The snow, which falls indifferently upon all things, covering them with a neutral whiteness and erasing all their differentiating details, is the symbol of Gabriel's new sense of identity with the world, of the breakdown of the circle of his egotism to allow him to become for the moment not a man different from all other men living in a world of which he alone is the center but a willing part of the general flux of things. (Daiches 36)

결국 눈은 게이브리얼의 새로운 인식, 즉 지배체제를 해체하는 의식혁명의 상징이다. 이 상징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부부간에 존재하는 이분법적 서열체제를 해체하며, 남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내재했던 모든 요소들의 (피)지배적 관념을 해체한다.

III

본고에서는 해체주의적 방법으로 이 작품을 분석하였다. 앞에서 보았듯이, 게이브리얼은 작품의 대부분에서 (피)지배적 사고를 지닌 인물로 제시된다. 이는 자기중심주의, 자기우월주의, 가부장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사대주의 등의 개념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이러한 개념은 구조주의와 서구형이상학적 이념에서 비롯된다. 특히 서구 형이상학의 이념은 대부분의 요소들을 이항 대립쌍으로 나누고 어느 한쪽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지배체제를 형성한다. 데리다는 이러한 관계를 “폭력적 서열제도”라고 설명한다(*Positions* 41).

데리다가 구조주의와 서구 형이상학을 정의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이 분법적 서열체제는 해체되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게이브리얼은 처음에는 (피)지배적 사고를 지닌 인물로 나오지만,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이러한 성격을 인식하고 해체한다. 특히 그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결국 그는 대립과 지배종속이 아니라 상호 개체를 인정하는 해체주의적 사고를 지닌다. 이러한 양상이 조이스의 작품이 지닌 해체주의적 관점인 것이다.

해체주의적 관념을 지님으로써, 작중 인물은 자신의 참된 삶을 약속할 수 있으며, 독자들은 문학 작품을 보다 다원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항대립 요소의 상호 보완작용은 계속되어야 하고 주인공의 자아인식 과정도 무한히 반복되어야 한다.

조이스는 「사자들」을 『더블린 사람들』의 발문(跋文)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단편을 통하여 자신의 해체주의적 의도를 표현하였다. 『더블린 사람들』의 '유년기' 단편에서 대부분의 더블린 사람들은 중심부재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 '청년기,' '성년기,' '공공생활'에서 일부 인물들은 중심이 부재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일부는 이를 인식하게 되지만 시작의지의 결핍으로 역시 마비된 생활을 한다. 그러나 「사자들」에서 주인공은 결국 자신의 패쇄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해체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인 삶을 추구한다. 조이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해체주의적 경향을 암시한 것이다. 물질문명과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조이스는 우리 인간들의 편협성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역설하고 있다 하겠다.

〈안동대〉

인용문헌

- Cheng, Vincent J. "Empire and Patriarchy in 'The Dead.'" *Joyce Studies Annual*, 4 (1993): 16-42.
- Daiches, David. "Dubliners."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Dubliner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Peter K. Garret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68. 27-37.
- Derrida, Jacques. *Of Grammatology*. Trans. G. C. Spivak. Baltimore & London: Johns Hopkins UP, 1976.
- _____. *Positions*. Trans. Alan Bass. Chicago: U of Chicago P, 1981.
- _____. "Différance." *Margins of Philosophy*. By Derrida. Trans. Allan Bass. Chicago: U of Chicago P, 1982. 1-27.
- _____.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 *Writing and Difference*. By Derrida. Chicago: U of Chicago P, 1978. 278-93.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2nd ed. California: U. of California P, 1982.
- Heilbrun, Carolyn G. "Introduction." *Recognition of Androgyny*. New York & London: W. W. Norton & Co., 1973.
- Ingersoll, Earl G. "The Gender of Travel on 'The Dead'." *James Joyce Quarterly* 30 (Fall 1992), p. 41-50.
- Joyce, James.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14.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 Faber, 1975.
- Kenner, Hugh. *Dublin's Joyce*. London: Chatto & Windus, 1956.
- Litz, A Walton. *James Joyce*. Boston: Twayne, 1966.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Noonday, 1959.